

랭보의 物質的 想像力과 우주적 에로티즘 研究

—元素들의 相互作用과 통일성에 대해—

李 準 五*

- | | |
|-------------------------------|-------------------|
| I. 序 論 | 의 지배와 調和 |
| II. 元素들의 相互침투와 轉移 | 1. 에로티즘과 調和 |
| 1. 相互 침투에 대해 | 2. 불(feux)이 물을 支配 |
| 2. 相互 轉移와 統一性에 대해 | IV. 結 論 |
| III. 우주적 에로티즘과 불(feux)·물(eau) | |

I. 序 論

물질적 想像力에 대한 바슈라르의 성찰내용을 따른다면 <형체들은 완성단계에 다다르지만 물질들은 결코 완성되지 않기>¹⁾ 때문에 <물질의 四元素야말로 무한한 몽상들의 도식이라는 점>²⁾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하나의 형체라는 것은 그 자체 스스로 변형될 수 없다. 형체가 변형된다는 것은 형체의 본질에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체의 변형에 마주친다면 우리는 어떤 물질적 상상력이 형체들의 유희에 작용하고 있노라고 확신해도 좋다.> 이렇게 볼때 F. Novalis³⁾를 고찰하면서 바슈라르가 늘상 사용했던 용어를 빌자면 비가시적 invisible 인 것을 보는 <見者>가 되기 이전의 랭보는, 손떨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비현실적인 것을 손대는 觸者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 상상력과 우주적 에로티즘”이라는 연구 제목을 붙인 이 논문은 실제로 잘 나타나지 않는 물·불·공기·흙의 四元素들의 상호 침투와 전이(轉移), 끝내는 물질의 상호 교호작용으로 생기는 에로티시즘을 정신분석적인 면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인 자신이 천명한 바 있는 <見者>의 思想을 정신분석적으로 더 자세히 고찰해보면 자신의 주위에 存在하고 있는 실제적인 四元素를 랭보는 로트레아몽의 想像의 力動的 에너지論 속에서 찾고 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랭보의 초기 詩「感覺 Sentation 과 「태양과 육체 Soleil et chair」에서부터 마지막 「啓示들 Illumination」⁴⁾에 나오는 「정령 Génie」에 이르기까지 그

* 본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 1) G. Bachelard: *L'eau et les rêves*, Bibl. p. 154. [la matière est le schéma des rêves Indéfinis] [les formes s'achèvent; les matière jamais]
- 2) Ibid. p. 183.
- 3) F. Novalis (1772-1801): 독일의 시인. Schlegel의 형체의 美學理論과 독일철학자 J.G. Fichte의 절대 이상주의에 영향을 받은 시인.
- 4) A. Rimbaud: *Illuminations* 을 P. Verlaine는 「착색판화집」으로 해설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그러나 필

속에서 찾고 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랭보의 초기 詩「感覺 Sensation」과 「태양과 육체 Soleil et chair」의 작품세계의 변형은 의지적이며 역동적 상상력으로 생기는 물질적 轉移作用의 발전현상들이라 할 수 있겠다. 물질이 형식 그 이상으로 원형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옛사람들이 4원소로 불렀던 공기·불·물·대지에 다름아닌 모든 물체에 깃든 그러한 구성원칙들 속에서 만물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또 사라진다. 시인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패턴 속에서 동양적인 사상과 원초적 자신 고유의 몽상적 창세기에 전념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내 보이는 물질들은 상호 역학적 침투와 전이의 작용을 하며 하나로 응결되지 않은 채 끊임없는 운동을 함으로서, 움직이고 변하고 덧없으며 만질 수 없는 모든 불안정한 물질들의 뒤섞임으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혼돈의 물질을 규정하려는 랭보의 의지가 이성적 착란 *délire* 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이것이 착란을 통해 〈見者〉가 되려는 시인의 우주적 몽상원리인 것이며 神秘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착란〉은 원소들 하나 하나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더욱 어지럽고 *vertige de l'eau* 혼미해 지는 것이다. 여기서 랭보적 〈혼미·어지러움〉은 전술한 바와 같이 그의 〈見者〉의 〈啓示〉에 정신분석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말해서 원소들, 사람, 짐승들, 사물들이 서로 조용하고 있으며 또한 물질적 통일체, 요소적 통일체로 그들은 역진하므로, 원소적 통일을 이루려는 의지 안에서 그들의 융해상태가 혼동상태로 화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혼동이야말로 랭보적 혼미와, 그것을 뚜렷이 밝혀 규정하고자 하는 그 어린 시인의 노력이, 서로 어우러지는 정점이 되는 것이다.

II. 元素들의 相互침투와 轉移

1. 相互침투에 대하여

흡이 이루고 있는 물체들 속에 공기가 하도 밀접하게 끼어들어서 흡인 것과 공기인 것을 분간하기 어렵다. 〈나무들과 가벼운 공기의 혼전(뒤섞임)을 통해 내가 달려들어 쓰러져야만 하는 대포〉⁵⁾를 상기시키고 있는 「Being Beauteous」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이야말로 바로 그런 것이다.

O la face cendrée, l'écusson de crin, les bras de cristal! le canoñ sur lequel je dois m'abattre à travers la mêlée des arbres et de l'air léger!

오 재빛의 모습이어, 갈기털의 방패꼴 무늬여, 수정같은 팔들이여!

나무들과 가벼운 공기의 혼전을 통하여 내가 달려들어 쓰러져야만 하는 대포여!⁶⁾

자는 Texte의 전면에 걸쳐 흐르고 있는 사상이 〈見者〉의 思想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제시들」이라 하였음을 밝혀둔다.

5) *Illuminations*: 「Being beauteous」

6) 「Enfance.」

대포에 의해 위협당한다고 느끼는 한 存在는 <上向촬영기 Contre-Plongée> 에 비추인 가지들과 혼합물질로 된 지붕을 이루고 있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 눈길을 돌린다.

L'essai des feuilles d'or entoure la maison du général. [. . .]. Les palissades sont si hautes qu'on ne voit que les cimes bruissantes.

무수한 금박지들이 장군의 집을 에워싸고[...]. 울타리들이 하도 높아 살랑거리는 꼭대기들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다.⁷⁾

하늘로 비상하려하나 아뭇든 제자리에서 비약하고자 하는 의지적 집념이 마비된 것처럼 헛된 일이긴 하지만 모두가 공기와 어우러진 植物의 有機性과 끝내 음악으로까지 구성된 어떤 속삭임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속삭임은 보틀레르의 自然(Nature)의 神殿에서의 속삭임과는 다르다. 그것은 물질적 四元素들의 속삭임이지 神話的 想像力을 유도하는 속삭임은 아니다. 뒤영친 꽃들에 푸른 공기가 스민 활짝 열린 유리창 앞에 앉은⁸⁾ 여인들의 아이를 상상하노라면 유리창 푸른 색에 앉아있는 발레리의 <실짚는 여인>이 떠오른다.

Assise, la fileuse au bleu de la croisée
où le jardin mélodieux se dodeline;
Le rouet ancien qui ronfle l'a grisée.

Lasse, ayant bu l' azur, de filer la caline

Chevelure, [. . . .]

음악적인 정원이 가볍게 흔들리는

십자형 푸른 유리창에 앉아서

실짚는 여인.

윙윙 소리나는 낡은 물레는 그녀를 취하게 한다.

창공을 마시며

부드러운 머리타레를 갖는데 지쳐서, (...)⁹⁾

그 윤기도는 플라즈마(緣玉髓) 안에서 아이들과 꽃들이 뚱뚱 떠돈다. <그 부드러운 머리카락들 속에>¹⁰⁾ 떨어져 스민 이슬처럼 공기와 액체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공기는 <아리따운 두 큰 누나들>에 접하여 모성애적인 다정함과 감수성이 어우러지는 그 羊膜과도 같은 안락함을 물 eau로 인해 얻게된다.

<계곡의 잠든 자>¹¹⁾가 휴식하고 있는 <초목이 이룬 동그라미> 속에서 강물이 <은빛의 누더

7) 「Les chercheuses de poux」:

<[. .] assis devant une croisée

Grand ouverte où l'air bleu

baigne un fouillis de fleurs.>

8) 「Album de vers anciens」: <assis au bleu de la croisée>.

9) P. Valéry: 「La Fileuse」.

10) 보틀레르는 바다를 女人의 머리채로 맹보는 숲을 여인의 머리채로 묘사한 바 있다.

11) 「Le Dormeur du val」.

기를 잡초에 얽어 매고> 그러다보면 초목에 빛 lumière 과 물 eau 이 스며드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의 육체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다.

C'est un trou de verdure où chante une rivière
Accrochant follement aux herbes des haillons
D'argent; où le soleil, de la montagne fière,
Luit: c'est un petit val qui mousse de rayons.

은빛의 냇마로 된 풀에 미친듯이 걸터있는
어떤 강물이 노래하는 초목이 이룬 동그라미
거기는 자만스런 산으로부터 태양이 비친다.
거기야말로 빛으로 부글부글 끓는 계곡이다.

「웅크린 자태들」 안에서 기괴한 인물은 <그의 영덩이 윤곽에 빛의 이음매를 형성해 주는 달빛>¹²⁾의 시적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유년기 I」에서도 <오렌지 빛 입술을 지닌 소녀>는, <무지개들과 꽃바다들이, 매지를 그늘지우고 가로지르며, 옷처럼 드리우고 있는 벌거숭이>인 그 소녀 자신의 육체가 공기와 물과 우주의 초목 속에서 융해되는 것을 본다.

[. . .] son domaine, azur et vert insolents [. . .], A la lisière de la forêt- les fleurs de rêves tintent, éclatent, éclairent,—la fille à lèvres d'orange, les genoux croisés dans le clair déluge qui sourd des prés, nudité qu'ombrent, traversent et habillent les arcs-en-ciel, la flore, la mer.

[...] 거만한 모습의 쪽빛과 초록이 드리운 그의 공간 [...] 숲기슭 저 너머에서 꿈꾸는 꽃들은 소리를 내고 번쩍이며 밝은 빛을 낸다. —평원에서 일어나는 밝은 홍수빛 속에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소녀, 싱싱한 나신으로 드러난 평원은 그늘지워져 펼쳐져 있고 무지개와 꽃과 바다를 장식하고 있구나! ¹³⁾

<거만한 모습의 쪽빛과 초록이 드리운 그의 空間> 속에서 초목과 하늘과 빛이 그야말로 열기설기 어우러진다. 하늘에 빛의 침투와 물 속으로 햇빛의 침투는 무지개라는 형태로 하나의 要素의 통일체를 실현하고, 그것이 지닌 상징적 가치를 드높이는 무지개 arcs-en-ciel 야말로 「대홍수 후에 Après le déluge」 속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인간들의 결합을 나타내며, <사람들이 바로 그 무지개에 기도를 올리고 dit sa prière à l'arcs-en-ciel>, 또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주기 위한>¹⁴⁾ 경고의 표현인 것이다.

Aussitôt que l'idée du Déluge se fut rassise, un lièvre s'arrêta dans les sainfoins et les clochettes mouvantes, et dit sa prière à l'arc-en-ciel à travers la toile de l'araignée.

대홍수에 대한 생각이 가라앉자마자 한마리의 산토끼가 토끼풀과 흔들리는 (꽃모양의) 방울 앞에 멈추어 서서 거미줄을 통해 무지개에게 그의 기원을 말한다.

12) 「Accroupissement」: <rayons de lune qui lui font
Aux contours du cul des bavures
de lumière>.

13) 「Enfance I」

14) 「Alchimie du verbe」.

「취선 Bateau Ivre」에서도 우리는 빛 lumière 과 물 eau 의 영상을 <수평선 아래에 마치 고삐들처럼 늘어지거나>¹⁵⁾ 풍경 위로 채색된 빛줄기를 드리우면서, 햇빛들은 그 채색된 빛들이 닿는 그 모든 사물들에 하나의 비현실적 특성을 부여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갑뺨」에서는 물속으로 대지가 엄청난 규모로 잠식하는 광경을 아래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 . .] qui forment un promontoire aussi étendu que l'Epire et Japon, ou que l'Arabie! Des fanums qu'éclaire la rentrée des théories, d'immenses vues de la défense des côtes modernes; des dunes illustrées de chaudes fleurs et de bacchanales; de grands canaux de Cartage et des Embankments; d'une venise louche; [. . .].

岬은, 고대 그리스의 에페이로스¹⁾와 페로포네스²⁾와 일본과 아랍 만큼이나 넓구나! 고대 아테네의 神殿들이며, 현대의 궁륭 côtes 들을 옹호하는 무한한 조망들; 박카스 축제와 뜨거운 꽃들로 장식된 유명한 砂丘들; 카르타주의 대운하들과 어렴풋한 베니스의 제방들(...).

<岬은 고대 그리스의 에페이로스¹⁾와 페로포네스²⁾와 일본, 아랍 대륙만큼이나 넓다.> 岬이 거대한 대륙과도 같이 바다 속에 넓게 전개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물 eau 은 <카르타주 대운하들과 어렴풋한 베니스의 제방들>과 더불어 대지 Terre 속으로 들이 민다. 설령 물이 흠에 스며 갯벌을 구성하듯 그렇게 대지의 내부 깊숙히 스며들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환적 접촉을 통해 물이 대지에 결합된다는 사실은 일상적인 것이다. 「취선 Bateau Ivre」이라는 시에서 다양한 실례를 보이고 있는 섬 또는 반도에 관한 주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과연 <출범한 반도들 Péninsules démarrées>은 고대 神話 속에 나오는 그 떠도는 섬들일까? 우리들은 여기서 까뮈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던 그르니에의 「섬들 Iles」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인에게 있어서 <출범한 반도들>의 이미지는 가장 고체적인 것들 즉 대지 Terre 들의 방향의 성향을 지닌 배 Bateau 의 상징을 유도하고 있다. 시인이라는 배가 일주하는 액체상태의 창공에 유성들이 떠돌듯이 대륙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부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적 시선을 던진다. 아마도 시인이라는 배(Bateau)가 그 무절제한 항해 도중에 마주친 <저 믿을 수 없는 플로리다州들 incroyables Florides>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는 키도 닷도 선원들도 없는 그 배가 어떻게하여 이번에는 하나의 섬처럼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바다 가운데 외따로 떠도는 유령같은 배가 대지 Terre가 되는 것이다.

「항해술 Marine」이라는 시가 구성되고 있는 흠과 물이라는 상호 대치되는 韻의 교차적 배어법에도 불구하고 대지 Terre와 바다 mer는 여전히 그들 각각의 고유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Les chars d'argent et de cuivre
Les proues d'acier et d'argent

15) 「Bateau Ivre」: <Tendus comme des brides
Sous l'orizon des mers>.

Battent l'écume,
 Soulèvent les souches des ronces.
 Les courants de la lande,
 Et les ornières immenses du reflux,
 Filent circulairement vers l'est,
 Vers les piliers de la forêt,
 Vers les fûts de la jetée,
 Dont l'angle est heurté par des tourbillons de lumière.

은과 구리로 된 꽃마차들—
 철과 은으로 된 뱃머리들은—
 파도를 치며, —
 고난의 근원을 불러 일으킨다.
 광야의 이동들과
 썰물이 남기는 거대한 자욱들은.
 동쪽을 向해,
 숲의 기둥들을 向해,
 선창의 앵글이 빛의 혼란으로 상처 받았던
 부두머리를 向해,

그렇지만 랭보의 시 안에는 일종의 물질적 교호작용과 지속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하는 시적 방식에 있어서 엄격성이 결여되어 덜 해명적일때 그 물질들의 相互 전이적 지속성은 더욱 더 미묘한 것이다.

2. 相互 轉移와 統一性에 대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극도로 상반된 元素들의 진정한 轉移가 이루어진다. 하늘과 하늘의 빛과 색채가 용해되고 存在者는 그러한 혼합된 元素들의 유동성 안에서 헤엄치는 기쁨 또는 그를 無 néant 로 만들어버리는 불길한 물의 공포에 스스로 몸을 맡겨 버린다. 모든 元素가 다 물 eau 로 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나의 심장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에서 <대지가 용해된다>가 그렇고, 「지옥의 한철」에서도 시인은 <한방울의 불 une goutte de feu>을 외치고 있다. 「움직임 Mouvement」의 작품 속에서도 빛이 대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

Ce sont les conquérants du monde
 Cherchant la fortune chimique personnelle;
 Le sport et le confort voyagent avec eux;
 Ils emmènent l'éducation
 Des races, des classes et des bêtes, sur ce vaisseau.
 Repos et vertige
 A la lumière diluvienne,

Aux terribles soirs d'étude.

그들은 인간의 화학적인 행운을 추구하는 세상의 정복자들 ;
 운동과 안락은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 ;
 그들은 이 배위에 있는 종족들, 계급들, 짐승들에게 교육을 가져간다.
 휴식과 현기증은
 대홍수의 빛 속으로
 연구의 참혹한 저녁 속으로¹⁶⁾

「유년시절 *Enfance*」에서도 빛·물이 동일한 흐름 속에 이끌려 들게 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는 것이다 : 〈초원에서 솟구치는 청명한 대홍수 *le claire déluge qui sourd des prés*〉, 〈빛이 비내리는 *la lumière pleût*〉 것이라든가 하는 것이다.

「*Mémoire*」에서도 〈오! 불의 물결이여! *Ô flots de feu!*〉와 〈물의 눈 *œil d'eau*〉이라든가 하는 것이다. 〈물의 눈(目)은 물(川) = 〰〰와 눈(目) = 둥근 태양이라는 연금술적¹⁷⁾인 표상 문자의 가치로서도 관련되는 이미지를 환기시킨다. 그것은 물·빛 그리고 물·공기가 상호 전이하는 운동이다. 그것은 또한 물냉이가 자라는 못물이 그 윤기도는 빛들을 대지 위에 비로 化하여 떨어지게 만들며 하늘에 보내는 땅의 이끼 속에서 밀고 나오는 물과 공기의 결합을 축성하는 잡초들이 빛으로 부글부글 끓는 유기적 움직임을 나타내 보인다. 이처럼 빛과 물은 「움직임 *Mouvement*」이라고 하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相互轉移하는 것이다.

「모국 *Métropolitan*」에서 〈장미빛과 오렌지빛 모래〉는 〈포도주빛 하늘에〉 의해서 말끔히 〈씻기운〉다. 그러한 은유들 중 몇가지는 랭보적인 세계에 일종의 유동적인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거기에는 存在者가 아마도 출생 이전의 원초적인 상태에까지 거슬러 오르는 어떤 행복 감에 젖어든다. 「태양과 육체 *Soleil et Chair*」에서 원초적 지위를 되찾으려는 의지적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다. 〈태양의 아름다움으로 올라가기 위해〉¹⁸⁾라 하였듯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 자신의 빛의 근원적 상태로 오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은유들은 또한 원소들의 相互교호작용 속에서 느껴지는 뒤틀림 *dérèglement*의 취한 상태가 고뇌대신 들어서는 균형의 단절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바로 그렇게해서 「취한 배 *Bateau Ivre*」가 자신의 모험의 정점에서, 〈항해자에게 열광적인 하늘을 열어주는 항성의 군도와 섬들〉¹⁹⁾을 보았노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댈 수 있는 것이다. 그 혼합적인 장소에서 헤엄(*Nager*)은 스스로 행복감에 젖어 있기를 원하지만 일말의 불안이 뒤섞인다. 죽음이나 자살등의 불길한 운명에 대한 끝없는 몽상 전부가, 그렇듯 강하게 물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면 많은 영혼에 대해서 물이 특별히 우울한 원소라고 한 가스통 바슈라르의 말을 우리는 상기한다. 랭보에게 있어서의 우울한 물의 표현은

16) 「*Mouvement*」.

17) Jean Richer: *Alchimie du verbe de Rimbaud ou les jeux de Jean-Arthur*, paris Didier, 1972.

18) 「*Soleil et chair*」: 〈à la beauté du jour〉.

19) 「*Bateau Ivre*」: 〈des archipels sidéraux! et des îles Dont les cieux délirants sont ouverts au vogueur〉.

〈죽은 자들에게 물을 먹이는 밤의 물들 eaux nocturnes〉, 〈회색 침묵과 흥분한 젊은이들 les jeunes et les silences gris〉이 〈목욕〉하는 밤, 시인이 「사랑의 사막들」²⁰⁾의 메마른 불모상태를 잔인하게 체험한 후에 그안에 시인 스스로 〈익사하는〉 〈말없는 밤〉, 이렇듯 **공기원소들을 액체화**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시인이 내부에서 스스로 받아들이는 어떤 고뇌의 징표들이다. 자신의 몽상에 사로잡혀 마치 〈불(火)을 만난 눈처럼〉, 〈용해되는 오펠리아처럼〉²¹⁾ 인간 존재들 그 자신들도 액체화될 우려가 없지 않는 同一한 우주 안에서 어떻게 그와 다른 몽상이 진행될 수 있을까? **눈은 水로 용해되고 오펠리아는 바로 그 물 속에서 용해되며, 그 물을 오펠리아는 〈이미 천년 그 이상 전부터〉 〈하얀 유령으로 통과하고〉 있다.** 오펠리아는 그녀의 방황을 끌어들이는 **넷물과 바다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원초적인 상상력이 自然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꿈꾸어진 물이나 연못의 물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오펠리아화 하여」 잠자는 存在, 즉 자신을 내팽개치고, 표류하며 조용히 죽어가는 존재들에 의해 쉽게 숨겨지는 것이다. 그때 죽음 속을 물의 死者들은 떠돌면서 꿈꾸기를 계속하는 것이다.²²⁾ 「취선 Bateau Ivre」에서도 랭보는 이러한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 〈(……) 창백하고 황홀한 吃水線을 생각에 잠긴 불의 死者가 때때로 내려간다. [……] flottaison blême/ Et ravie, un noyé pensif parfois descend;〉 또한 예수께서 풍증환자를 치료해 주는 내용이 담긴 요한복음(5장 1절~18절) 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쓴 〈proses Evangéliques〉에서 우리는 물의 영상이 검고 불길하며 〈옆으로 누운 흰 천사에 유사한 환영〉 밑에 〈문힌〉 권태의 실체가 된 물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Beth-Saïda, la piscine des cinq galeries était un point d'ennui. Il semblait que ce fût un sinistre lavoir, toujours accablé de la pluie et moisi [noir] [...]. L'eau était toujours noire, et nul infirme n'y tombait même en songe [...]. Il y avait un jour, de février, mars ou avril, où le soleil de deux heures après midi, laissait s'étaler une grande faux de lumière sur l'eau ensoleillée [...].

베쓰-사이다, 다섯개 회랑의 그 연못은 권태의 지점이었다. 그것은 항상 비와 검은 곰팡이로 짓눌린 일종의 불길한 세탁장처럼 보였다.

[...] 물은 항상 검었으며, 거기에서는 그 어떤 불구자도 공상에조차 잠기지 않았다. [...] 오후 두 시의 태양이 “문힌 물” 위로 커다란 빛의 낮을 드리우고 있는 2월, 3월, 또는 4월 어느 날이 있었다. [...] ²³⁾

랭보 시에 있어서 물이 또한 일종의 인력을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0) 「Les déserts de l'amour」.

21) Rimbaud: 「Ophélie」.

22) G. Bachelard: —*L'eau et rêves*: 이가림역, 문예출판사 p 120.

—*Le droit du rêve*: 이가림역, 열화당
Ciel! Amour! Liberté! Quel rêve!

〈Tu te fondais à lui comme une neige au feu; [.]〉

23) A. Rimbaud: 「Proses évangéliques」: 〈Beth Saïda〉, pléiade, p. 199.

「記憶 Mémoire」 속에 나오는 江 le fleuve은 닳이 달린 쇠사슬 주변에 소용돌이를 일게하는 <물구덩이 trou d'eau> 한복판에 말려든 놀잇배를 삼키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물구덩이 trou d'eau> 위에서, 위에서 인용한 <잔인한 구멍 atroce entanour>, <물친 물 l'eau ensevelie> 그리고 <두터운 물회오리들 malstrôms épais>속으로 「취선 Bateau Ivre」을 빨아들이는 수십겹의 그 소용돌이와 동일한 것이다. 차라리 하늘과 바다가 한데 어우러지듯 하고 더욱 극단적으로 물이 그것을 둘러싼 공기 그 자체를 갈망하여 탐욕스럽게 들이키는듯이 보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Et dès lors, je me suis baigné dans le poème
De la Mer, infusé d'astres, et lactescent,
Dévorant les azurs verts; où, flottaison blême
Et ravie, un noyé pensif parfois descend.

그리고 나서 나는 “바다의 시” 안에서 유명했네,
별들에 잠겨, 젓빛이 된 채,
초록의 창공을 들이마시는; 거기로
창백하고 황홀해 넋을 잃은 부유처럼,
생각에 잠긴 한 익사자가 내려오곤 했지. 24)

금방 알 수 있듯이 별들은 물표면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물 eau은 일반적으로 거울과 동일시된다. 별들은 거기서 반사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물-거울 속에 잠겨들어 同一化된다. 그리하여 별들은 바다가 인광燐光을 띠게 만드는 적층류들과 플랑크톤 plancton에 완전히 뒤섞이고 마치 서서히 잠겨내리는 익사자처럼 바닷물의 심연에 끌려들어 마침내는 중력의 법칙들에 스스로 내맡겨 버린다. 그것이야말로 소우주와 대우주가 분리되지 않는 한 우주의 순환 이마주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들이삼키다 Dévorer>라는 동사가 암시하듯이, 대기가 열배로 가중된 힘과 더불어 바다의 牽引力을 감수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바다의 詩 /De la mer>는 초록의 창공을 <들이삼키는>데, 그것은 詩가 창공을 탐욕스럽게 들이마시기 때문이며,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는 창공의 색깔들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별들과 적층류들의 빛깔인 젓빛깔을 띠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마치 거대한 <물구덩이>처럼 나타나니, 그것은 우주 전체와 우주에 우굴거리는 인간들이 송두리째 그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물구덩이 trou d'eau>인 것이다. 이제 바다는 하나의 水面이 아니고, 시적 想像力이 그것을 송두리째 인수해 버린다. 바로 그 때문에 바다의 심연에 빠져들고자 하는 취한 배 Bateau Ivre의 병적인 욕구가 <오! 바다로 내달도록 나를 내버려다오. O que j'aïlle à la mer!>로 표현된다. 바다로 내달는 것은 물론 바다의 심연 속으로 내달는다는 것이다. 맹보가 스스로 이러한 <착란 dérèglement> 상태에 빠져드는 순간에 수면이 곧 영원과 죽음의 초대요, <원시의 대하(大河)

24) A. Rimbaud: 「Bateau Ivre.」

들에서 죽음을 맞으라 Mourir aux fleuves barbares)는 유혹인 것이다.

그렇지만 <물의 혼미 vertige de l'eau>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극복될 수 있다. 나르시스가 물 속에 자신의 美의 평화스런 광경을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액체거울은 자신 고유의 시선 regard 을 되돌려 주는 공모의 시선이었던 것이요, 자신의 의구심에 대해 다시 움트는 호의적인 반응이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랭보에게도 안도감이 찾아든다. 요컨대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는 한 自我, 즉 허구적 自我, <자신이 기괴하게 만들고 rendre monstrueux, 몸의 기관을 절단시키고자 애썼던>²⁵⁾ 한 自我에 자신의 視線을 고정시키기에는 시인은 너무나 호기심이 강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랭보는 <他者 un autre>인 우주적인 自我와 연관되어 있는 우주의 元素들 속에 개발된 영혼을 침투시켜 자유스런 <見者>로서 시선을 지니고 몽상에 임하는 것이다.

Ⅲ. 우주적 에로티즘과 불(feu)·물(eau)의 지배와 調和

1. érotisme 과 調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물 l'eau 과 大地 terre, 물 l'eau 과 공기가 서로 끌리고 끌어당기듯이 상호 침투하며 끌어당기는 원소들이 쌍쌍으로 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元素들이 융합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元素들의 융합 unité은 원소들 간의 전이(轉移)에 관련하여 더욱 은유적으로 표현되면서 이런 저런 에로틱한 이미지들을 낳는다. 그러한 <혼인들 Noces>은 종종 調和롭기도 하고 격렬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번성력이 풍부하다. 우리는 또한 <나는 나체가 되어 대지의 정기에 쌓인 채 바다에 뛰어들어 그 정기를 바닷물에 씻고, 다시 먼 옛날부터 大地(terre)와 바다 Mer가 서로의 입술을 맞부딪치며 숨쉬고 있는 저 포옹의 접촉(...)>이라고 쓴 까뮈의 「티파사에서 結婚」의 한 구절이 상기된다.

다음 랭보의 시에서 보이는 여성 요소인 대지 terre와 남성 요소인 태양 soleil과의 열정에 서도 우주적 에로티즘을 엿볼 수 있다.

La nature s'éveille et de rayons s'enivre
 La terre, demi-nue, heureuse de revivre,
 A des frissons de joie aux baisers du soleil
 자연은 잠깨고 빛들은 열광하는데,
 재생의 기쁨에 찬 만나체인 大地는
 태양의 포옹으로 회열의 전율을 느낀다. ²⁶⁾

25) A. Rimbaud: 「Lettre du voyant à Paul Demeny.」

26) A. Rimbaud: 「Les Etrennes des orphelins.」

Le Soleil, le foyer de tendresse et de vie,
 Verse l'amour brûlant à la terre ravie,
 Et quand on est couché sur la vallée, on sent
 Que la terre est nubile et déborde de sang
 Que son immense sein, soulevé par; une âme,
 Est d'amour comme Dieu, de chair comme la femme,
 Et qu'il renferme gros, de sève et de rayons,
 Le grand fourmillement de tous les embryons.

생과 애정의 난로불인 太陽은,
 탐욕스런 大地에 이글거리는 사랑을 붓고
 계곡 위에 누워있을 때면, 혼기에 찬 대지는
 피를 흘리고 어떤 영혼으로 흥분된
 그의 넓은 가슴은 여인과 같은 육체와
 神과같은 사랑이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또 대지는 정액과 빛으로
 모든 새싹들의 잉태소리를 지니고 있다. 27)

청춘기를 다룬 이 긴 시의 제목으로서 「태양과 육체 Soleil et chair」가 그 동음이철 homophonie 성에 의해 젊은이가 태양과 대지에 투사하는 성적관계를 잘 암시하고 있거니와, 여기에서 <혼기에 찬 大地 la terre est nubile>가 그것에 액체의 불을 쏟는 태양에 의해 수태하게 된다. 또한 저 격렬한 물의 요정이 비너스라고 불렸던 물과 태양의 순결한 처녀 <수련에게 입맞춤을 하며/우주적 정액/ 젊은 강물/ 초록나무들의 장미빛 피/ pan의 정액 속에 하나의 우주를 낳는다> 그러한 관점아래서는 그 표현이 가질 수 있는 수사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상실해버리는 일종의 애니미즘 Animisme 속에서 우주의 모든 요소들간에 어떤 조화로운 상응관계가 설정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음의 시귀를 통해 더욱 명료하게 나타낸다.

Je regrette les temps de l'antique jeunesse,
 Des satyres lascifs, des faunes animaux,
 Dieux qui mordaient d'amour l'écorce des rameaux
 Et dans les nénuphars baisaient la Nymphe blonde!
 Je regrette les temps où la sève du monde,
 L'eau du fleuve, le sang rose des arbres verts
 Dans les veines de Pan mettaient un univers.

난 고대의 청춘기를 후회한다.
 동물들의 牧神, 반인 반수神과
 神들은 사랑으로서 나무가지들의 껍질을 물어뜯고
 금발의 물요정은 수련 속에서 입맞춤을 하는구나.
 우주의 정액·강물·초록나무들의 장미빛 피는

27) A. Rimbaud: 「Soleil et chair.」

pan(凡)神의 정맥 속에 하나의 우주를 낳는다. 28)

또한 아래와 같이 「니나의 대답」이라는 시에서 청춘을 강력히 부추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은밀하고 감각적이며 격렬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한다.

Quand tout le bois frissonnant saigne
Muet d'amour
De chaque branche, gouttes vertes,
Des bourgeons clairs,
On sent dans les choses ouvertes
Frémir des chairs.

전율하는 숲이 무언의 사랑의 피를 흘릴 때
가지마다 떨어지는 푸른 물방울과 맑은 새싹들,
벌린 것들 속에 육체가 전율하는 것을 느끼는구나! 29)

비록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와 同一한 주제가 「첫 성체배령들 Première communions」안에 잘 나타나 있다. 거기에서는 마을 교회들이 大地의 死産으로 내려온 돌더미로 묘사된다. 시 전반에서 종교의 파괴적 요소가 강조되어 있는지라 인간들이 교회들을 의식儀式 Culte에만 바쳤기 때문이다.

La pierre sent toujours la terre maternelle.
Vous verrez des morceaux de ces cailloux terreux[...]
Dans la campagne en rut qui frémit solennelle[...]
Mais le soleil éveille, à travers les feuillages,
Les vieilles couleurs des vitraux irréguliers.

돌은 언제나 모성적 大地를 느끼고
그대들은 흙의 자갈더미를 보리라. [...]
발정하는 평원에서 태양은 몸을 떨고 [...]
그러나 태양은 나뭇잎을 통해
어설픈 유리창의 낡은 색채를 일깨운다. 30)

생동적 역동성에 전율하는 농촌 la campagne 과, 인간들에 의해 대지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교회들 간의 대립이 대지를 번성케하고 유리들 vitraux 을 잠재울 수 있는 한 태양의 남성적 역할을 확고히한다.

또한 때로는 사소한 사항들 속에 감춰지는 그러한 우주적 에로티즘의 이미지들을 랭보는 흔히 바다에서 벌어온다. 「일곱살의 시인」에 의해 꿈꿔지는 평야가 <사랑에 빠진 여인>, <넒

28) A. Rimbaud: Ibid.

29) 「Les reparties de Nina.」

30) 「Les premières communions.」

실거리는 파도들 houles), 〈털북투성이 pubescences〉 등등의 단어들을 결합시키는 바다의 함축된 뜻 Connotation에 의해 여성화되고 에로티시제 된다.

Il rêvait la prairie amoureuse, où des houles
Lumineuses, parfums sains, pubescences d'or,
Font leur remous calme et prennent leur essor!

그는 사랑에 빠진 평원을 꿈꾸었다.

거기서 넘실거리는 빛의 파도들, 청신한 향기들, 금의 솜털들, 고요히 소요를 만들고 그들은 비상
을 한다. 31)

보들레르의 머리타래에서 바다와 半球 hemisphere 전체를 연상했으나, 랭보는 그것을 뒤덮고 있는 초목 안에서, 大地에 포개진 바다 안에서, 여성의 치골을 연상하지 않았던가? 우주 안에서는 모든것이 혼란하고 상응한다. 〈창공과 파도가 영성체한다. L'azur et l'onde communient〉 「취선」은 〈大地 terre〉 또는 〈배 bateau〉에 결합된 바다의 혼란을 에로티즘한 〈쏟아진 사랑〉으로, 〈취한 마비상태들로서 포만한〉 채로 〈바다 mer〉와 〈하늘 ciel〉에 내맡겨진 〈배 bateau〉의 혼란한 에로티즘이 표현된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를 이루고 있다. 밤하늘이 바다에 의해 잉태되는 것 같다. 밤하늘이 바다의 심연으로부터 솟아나며, 그래서 〈현란한 눈이 덮힌 초록의 밤〉이 〈바다로부터 서서히 눈까지 거슬러 오르는 입맞춤〉이 되는 것이다. 〈배〉가 내맡겨지는가 하면 바다는 배로 들어가서, 〈초록 물이 나의 전나무 선체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부터 나는 《바다의 詩》 안에서 유영했다. Et des lors, je suis baigné dans le poème; De la mer〉, 〈파도들의 신음과 느릿한 울동 Délire et Rythmes lents des vague〉은 사랑의 행위의 성적 기성에 비유된다. 〈알코올보다 더 강렬하고 우리의 시흥보다도 폭넓은〉 바다의 詩 안에서 〈사랑의 쏟아진 다갈색 얼룩들이 발효한다.〉 사랑의 행위가 배를 전을케하는 격렬한 리듬을 취하는 야만적 은유를 통해 대지 terre와 바다 mer가 원시적으로 서로 결합하는 것이다.

[. . .] sentant geindre à cinquante lieues
Le rut des Béhémots et les Maelströms épais
J'ai suivi, des mois pleins, pareille aux vacheries
Hystériques, la houle à l'assaut des récifs,
Sans songer que les pieds limineux des Maries
Pussent forcer le mufle aux Océans poussifs!
50里 밖에서 Béhémot와 Maelström 북빅양의
소용돌이 치는 발정, 히스테릭한 황소와 같이 가득한 월경
성모마리아들의 빛발들이 혈떡거리는 대양에서
암초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물결을 나는 따른다. 32)

31) 「Les poètes de sept ans.」

32) 「Bateau Ivre.」

이와같이 태양 soleil 과 大地 terre 와 또는 大地 terre 와 바다 mer 그리고 바다 mer와 하늘 Ciel 과의 혼례가 격렬한 이미지들을 낳는다면,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실체들인 물水과 불火은 서로 상반되면서도 때로는 번성력을 지니는 폭발적 혼인들의 대상이 된다. <여인이 열정을 끄듯이> <물eau 은 불 feu 을 끄며>, 논리적으로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불러일으킨다면 성적으로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갈망한다.>는 점을 들추면서 G. Bachelard 는 불의 남성다움과 물의 여성다움을 다음과 같은 말로서 설명하고 있다.

Si le Soleil est le Glorieux Epoux de la Mer, il faudra qu'à la dimension de la libation, l'eau se donne au feu, il faudra que le feu prenne l'eau.

태양이 바다의 장엄한 남편이라면 神酒의 차원에서 물 eau 이 불 feu 에 몸을 내맡겨야할 것이요, 결국 불 feu 이 물 eau 을 차지해야할 것이다. ³³⁾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유명한 「영원 L'Eternité」에서는 에로티즘의 실제적인 풍요성이 명료하게 나타나며 결국 우주적 오르가니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Elle est retrouvée.

Quoi-L'Eternité

C'est la mer allée

Avec le soleil.

Ame sentinelle,

Murmurons l'aveu

De la nuit si nulle

ET du jour en feu.

Des humains suffrages,

Des communs élans

Là tu te dégages

ET voles selon.

Là pas d'espérance

Nul orietur

Science avec patience

Le supplice est sûr.

[.]

마침내 다시 찾았노니!

무엇을? 영원말이야,

그것은 태양과 함께

뒤섞여 증발된 바다이다.

초명인 영혼이여!

33) G. Bachelard: *L'eau et les rêves*.

그토록 허무한 밤과
 불타는 낮의 고백을
 하지 않겠는가?
 인간들의 짧은 기도로부터
 공동의 비상으로부터
 거기서 그대 벗어나
 그리하여 ...따라 비상한다.
 거기엔 희망도
 神도 없다.
 인내가 함께하는 학문은
 분명 형벌임에 틀림없구나!
 [...].³⁴⁾

1970년 5월에 쓴 「영원 L'Éternité」의 원고에서는 <태양과 함께 가는 바다>라고 <Allée/Avec>로 기술했다가 3년 뒤인 1973년³⁵⁾ 「지옥의 한철」의 「언어의 연금술 Alchimie du verbe」에서는 <mêlée/Au>로 異書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에로티즘이 오르가니즘화 하여 조화와 自由, 그리고 구원과 증발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려고한 시인의 무의식적 몽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의미론적 측면에서 고찰해 본다 하더라도 전치사 <avec 함께>는 두개의 각각 다른 병렬적인 개체를 동사의 상황보어로 상호 수반하는 것이며, 전치사 <à……에>는 소속을 나타내는 동사의 상황보어를 역시 동반하는 것으로서 두개의 개체가 同一化 S'identifier 하여 합일성 unit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두개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오르가니즘을 통해 <들 속에 하나>가 되어 마침내 증발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J.P.Richard에 의하면

Allée avec, et non pas simplement mêlée à, comme il est écrit dans l'Alchimie. L'union des deux extrêmes sensibles, eau et feu, ne se sépare pas du mouvement qui les attire l'un vers l'autre, et qui les pousse en même temps, l'un avec l'autre vers un autre espace et vers un autre temps, vers une nouvelle substance, une et ambiguë, une eau de feu.

<연금술>에 적혀있듯이 단순히 바다가 <섞인 mêlée à>것이 아니라 <조화된 allé avec>것이다. 물(水)과 불(火)의 이 뚜렷한 두 극의 결합은 그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동시에 서로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을 향해 <불의 물 eau du feu>이라는 하나이며 분명치않은 새로운 물체를 向해 밀어내는 움직임과 분리되지 않는다.³⁶⁾

34) L'Éternité: Orietur은 Latin 語로서 <Sol justitiae>로 <le vrai soleil 神>이라는 뜻이다라고 André Guyaux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llusion si texte sacré:
 “Et oriatur vobis nomen sol ustitiae
 et sanitas in pennis ejus”.
 (revue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Lectures de Rimbaud) p. 67

35) Marcel A. Ruff: *A. Rimbaud, Poésies*, Nizet Paris 1978. *Introduction, classement chronologique et notes.*

36) J. -P. Richard: *Poésie et profondeur*. Seuil Paris 1955. p. 217

라고 한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우리의 주장과는 견해를 약간 달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우주적 에로티즘의 관점에서 그 분석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로소 동일한 소망 *aveu* 아래 <그토록 허무한 밤 *De la nuit si nulle*>과 <불이 감도는 낮 *du jour en feu*>이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Barbare*」의 바다가 <비단 *soie*>이 되듯이 태양의 <잉겔불 *braises*>은 <사틴 *Satin*>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반되는 감각들의 혼합(밤과 낮, 잉겔불과 *Satin*)에 힘입어 몽상가는 물질적 우연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니 그것은 끝내는 <불꽃과 얼음의 천사들 *des anges de flamme*>이라는 효과를 자아내게 하기도 한다. 천사가 물질에서 모면하는 것과 꼭마찬가지로 그토록 이질적인 결합들을 상상하는 의식이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혼합물질, 즉 무시간성과 물질적 상상력의 질료인 제5요소를 안에서 상승하는 어떤 행복감에 스스로 내맡긴다.

Des humains suffrages,
Des communs élans
Là tu te dégages
Et voles selon

인간들의 짧은 기도로부터
공동의 비약으로부터
거기서 그대는 자유로와져
그리고 ...따라서 비상한다.

2. 불(feux)이 물(eau)을支配

물과 얼어붙은 물의 변증법적 관계(물이 액체상태로 환원되기보다 훨씬 더 잘 불에 환원될 수 있는 물)가 「*Barbare*」 시 전반에 그 토대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변증법적 관계를 도식화하여 요약해볼 수도 있을 것이려니와 불에 관련된 모든 것이 얼어붙은 물에 결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이아몬드와 별>들이 그것들의 섬세하고 항구적인 순수성을, 얼음의 딱딱한 빛에 한층 더 첨가하여 주기 때문이요, <피가 흐르는 고기로된 별장 *le pavillon en viande saignante*>이 그 색깔, 그 형태 그리고 특히 그 개념적 모호성 속에 이미지가 암시하는 격렬한 감각들을 통해서 불꽃을 환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제 「*바바르* *Barbare*」 시의 일부를 도식화 함으로써 불(火)이 물(水)을 지배하게 되는 1) 두원소=불/물의 등식과, 불(火)-물(水)이 상호침투 교호작용하는 2) 불(火)↔물(水)의 도식이 성립될 수 있다.

$$1) \text{ Deux éléments(두원소)} = \frac{\text{Feu(火)}}{\text{Eau(水)}} \text{와 같이 불(火)이 물(水)을 지배할 때,}$$

$$\frac{\text{—le pavillon en viande saignante}}{\text{Feu(火)}} / \frac{\text{sur la soie des mers et des fleurs arctiques}}{\text{Eau(水)}}$$

-Les braiser / pleuvant aux rafales de givre
 Feu(火) / Eau(水)
-les feux / à la pluie du vent de diamants
 Feu(火) / Eau(水)
-jetée par le coeur terrestre éternellement carbonisé pour nous.
 Feu(火)
-la musique, virement des gouffres / et choc des glaçons aux astres[...]
 Feu(火) / Eau(水)

2) Feu←→Eau 상호 교호작용할 때

-Au fond des volcans / et des grottes arctiques.
 Feu(火) / Eau(水)
-les vieilles flammes, les braisiers / et les écumes.³⁷⁾
 Feu(火) / Eau(水)

이처럼 양립할 수 없는 言語를 서로 짝지어 수사학적 효과를 올리려는 모순어법의 사용이, 상호 상반되는 要素들의 침투와 융해를 더욱 명료하게 부각시켜 준다. <마치 얼음물과 꽃들의 틈바귀와 Etnas 화산의 부드러운 분출>³⁸⁾을 볼 수 있는 팽창하는 岬에서 처럼, 이따금 랭보의 <꽃>은, 격렬한 화산 못지않는 빙하의 불모지에서 꽃을 피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이질성은 그들의 환상적인 비실재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그것들은 실재하지 않는다. Elles n'existent pas>, 그리고 <沙丘들은 뜨거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다. les dunes sont illustrées de chaudes fleurs>³⁹⁾

IV. 結 論

전술한 바와 같이 元素들 속에 想像의 世界를 창조하고 있는 시인의 무의식은, 그러한 元素들 하나 하나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없기때문에 더욱 더 심화됨을 알 수 있다. 무슨 말 인고하니, 물질적 상상의 세계 안에서 元素들과 만물이 서로 상응하고 있으며, 일종의 물질적 통일체로 나아가 그 통일체 안에서는 그것들이 융해되어 결합되기 마련이다. 바로 그러한 명상이야말로 랭보의 物質的 상상력의 발로이며, 무의식의 역동적 상상력의 원리로서 작용한다. 이제까지 본바와 같이, 상호 상반되는 원소들의 결속이 우주적 수태에 가담하므로써 잉태와 생명의 생산이 바로 자연의 원리가 되며 이 생산성이 인간을 이바지시키려는 섭리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듯 랭보의 상상력은, 자연이라는 이미지의 공간 속에 원소들이 상호 침투—전이—융해—결합(統一體)(에로티즘)—오르가니즘—현기증—見者가 되기까지의 도식이 한 전략의 극점을

37) [Barbare]

38) [Promontoire]: de molles éruptions d'Etnas et des crevasses de fleurs et d'eaux des glaciers.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태리 火山, Etnas

39) [Barbare.]

연결하는 동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공모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모든 창조자와 마찬가지로 시인은 작품을 쓰기 전에 저 심사숙고하는 몽상, 사물의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몽상을 알고 있다. G.Bachelard가 말한 것처럼 사실 시인은 한 우주의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탄생에 자신의 存在를 내맡기지 않고는 불에 대한 세계의 제시에서 아주 가까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불이 생체와 물질에 작용하고 또 그것이 물질의 참다운 활력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이 불과 물, 원소들 사이의 항구적인 힘의 교환에 의해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다. 또한 <물이 하나의 생명의 원소이며 모든 생명에 있어서 최초의 환경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인 몽상의 필연성에 의해 시인은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 원소들, 즉 불·물·하늘·공기·지상의 실체가 갖는 놀라운 물질성에 결합되도록 하는 커다란 우주적인 꿈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Bibliographies

- A. Rimbaud, *Oeuvres complètes*. pléiade annoté par R. Reneville.
 G. Bachelard, *L'eau et les rêves*. Bibl. p. 154.
 La Terre et les rêves du repos, Paris corti 1948
 L'Air et les songes, paris, Corti, 1943.
 La Terre et les rêveries de la volonté, paris, Corti, 1948
 La Psychanalyse du feu, Paris, Gallimard 1949.
 Le droit du rêve
 André Guyaux, *Lectures de Rimbaud*. Revue de l'Université de Bruxelles.
 A. Camus, *Noces. l'Etranger*.
 Barrere, Jean-Bertrand; *Le regard d'Orphée ou l'Echange poétique*; Hugo, Baudelaire, Rimbaud, Apollinaire, Paris CDU, Sedes 1977.
 Bonnefoy, Yves: *Le Nuage rouge*, Paris, Mercure de France, 1977.
 Paul LAPEYRE: *Le Vertige de Rimbaud*, Bibli, Payot. Suisse. 1981.
 Chaudwick: *Etudes sur Rimbaud*, Paris, Nizet, 1960.
 Char, René: *Recherche de la base et du sommet*, Paris, Gallimard, 1960.
 Delattre, Dr. J.-L.: *le déséquilibre mental d'Arthur Rimbaud*, Thèse de Médecine, Paris 1928.
 Eigeldingerr, Marc: *Rimbaud et le mythe solaire*, Neuchâtel à la Baconnière, 1964.
 Poésie et Métamorphoses, Neuchâtel, à la Baconnière, 1973.
 Giustom Jean-Pierre: *Rimbaud créateur*, Paris IV, 1977.
 Richer, Jean: *L'Alchimie au verbe de Rimbaud ou les jeux de Jean-Arthur*, Paris, Didier, 1972.
 Bernard, Suzanne: *Rimbaud, Proust et les Illuminations*, Revue des Sciences humaines, No spécial: Autour du Symbolisme, 2e trim. 1955.
 Jean Cohen: *Poésie et redonance* (Verlaine, Rimbaud, Baudelaire) Poétique VII, 1976 p. 413-422
 Clement, Pierre: *Illuminations, Barbare*. [Explication française], Information littéraire XXVI, 1974
 Poulet, Georges: *Les Métamorphoses du cercle*, Paris Plon 1961.
 La Conscience critique, Paris, Corti, 1971.